

사람이 희망입니다.

KRIVET Issue Brief

2017

124호

발행인 이용순 | 발행일 2017년 5월 30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남녀 근로자 모두를 위협하는 직장 성희롱 실태

- 15개 산업분야 근로자 중 29.0%가 지난 6개월간 1회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, 여성 피해자는 34.4%, 남성 피해자는 25.0%로 남녀 모두 직장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음.
- 남녀를 불문하고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남자이며, 동성 간의 성희롱도 무시 못 할 수준임.
- 근로자 1인이 6개월간 평균적으로 경험한 성희롱 횟수는 6.36회이며, 남자는 6.79회, 여자는 5.79회임.
- 남자가 여자보다 직접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남녀 모두를 보호하는 직장 성희롱 방지 정책을 위해 사각에 위치한 남성 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실태 파악이 필요함.

- 기존의 성희롱 피해 실태를 분석한 자료는 여성 근로자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, 남성 근로자의 피해 실태는 상대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.
- 이 글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던 남성 대상 성희롱을 포함하여 국내 직장 성희롱의 실태를 분석하고, 남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.

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「직장인 근무환경 설문조사(2016)」

- 분석 자료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「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」에서 실시한 「직장인 근무환경 설문조사(2016)」
- 분석 대상: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15개 산업을 선별하여,¹⁾ 산업당 200명씩 총 3,000명의 근로자(남자 57.8%, 여자 42.2%)를 조사함.
 - 통계청의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2016년 2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성비에 따라 각 산업별 응답자를 표집하였으며, 응답값의 대표성을 위해 가중치 적용함.
- 성희롱 피해자 분류 방법
 - 조작적 피해자: 13개의 성희롱 행위 중 한 건 이상을 설문 응답 시점 이전 6개월간 1회 이상 경험하고 수치심을 느낀 경우
 - 주관적 피해자: 스스로 판단했을 때 설문 응답 시점 이전 6개월간 1회 이상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

각주

1) 응답자 확보가 어려운 농림수산업, 광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하수·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, 국제 및 외국기관,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은 제외함.

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
정부 3.0
[개방 · 공유 · 소통 · 협력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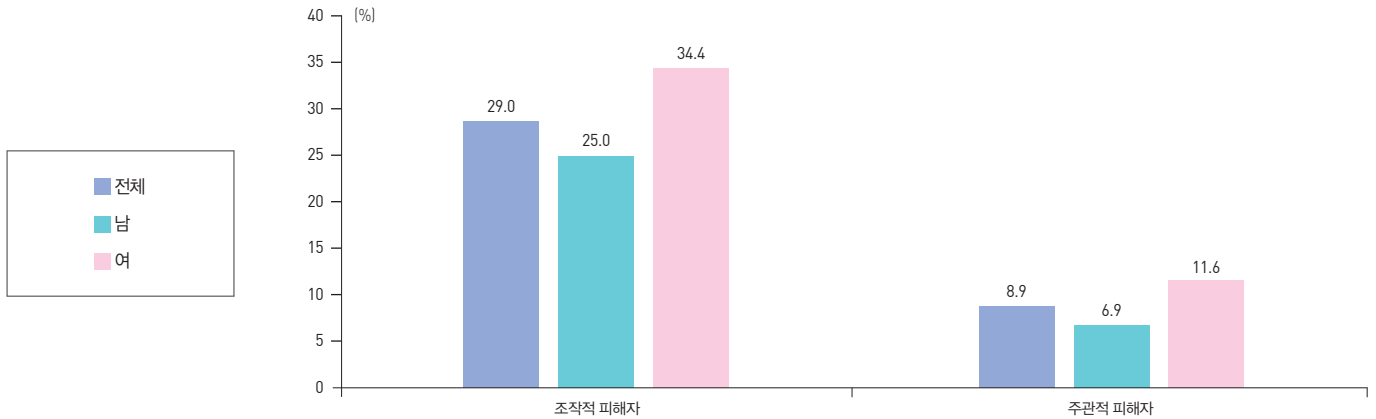
KRIVET 모바일

02 직장 성희롱 피해자 추이

직장 성희롱의 조작적 피해자 비율은 여성 34.4%, 남성 25.0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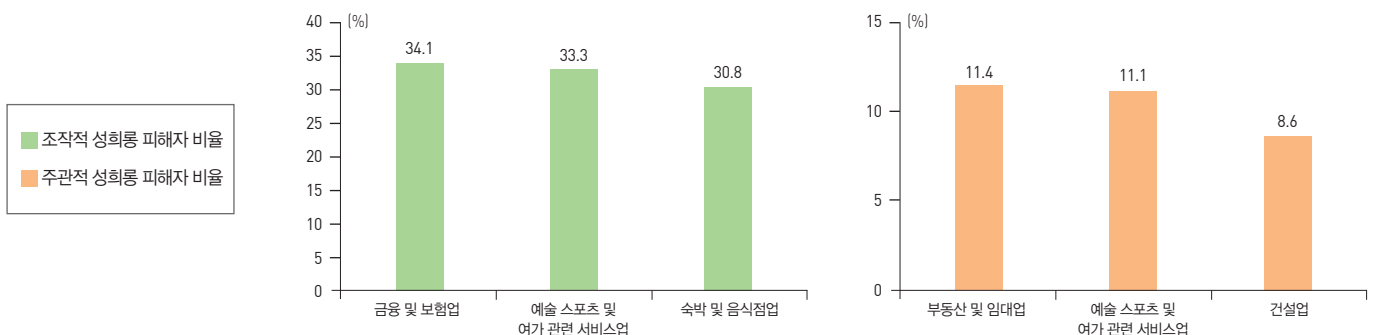
- 직장 성희롱의 전체 평균 피해자 비율은 조작적 피해자의 경우 29.0%, 주관적 피해자의 경우 8.9%에 달함.

- 여성 피해자의 경우 조작적 피해자 비율은 34.4%, 주관적 피해자 비율은 11.6%에 달하며, 남성 피해자는 조작적 피해자 비율이 25.0%, 주관적 피해자 비율은 6.9%임.
- 즉, 남녀 모두 직장 성희롱 행위를 경험하면서도 스스로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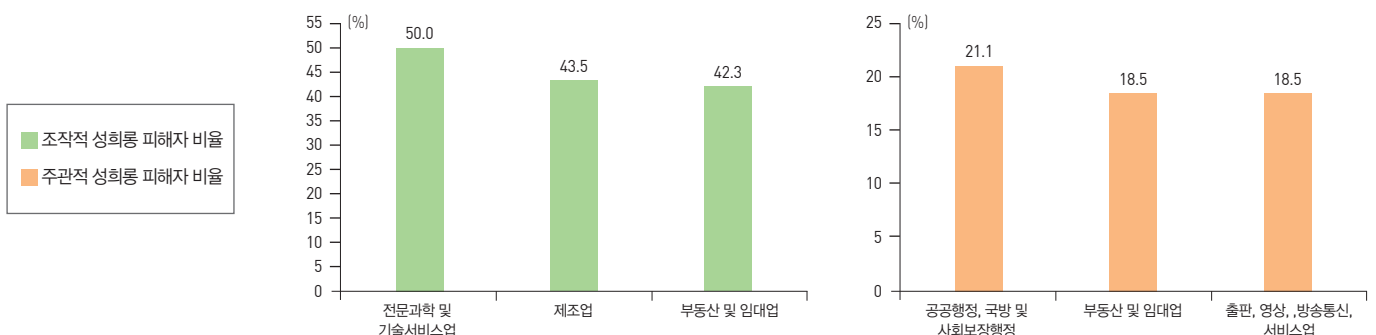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전체 및 성별 성희롱 피해자 비율

- 남성 성희롱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조작적 피해자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(34.1%),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33.3%), 숙박 및 음식점업(30.8%)으로, 남성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꼴로 성희롱을 경험함.
- 주관적 피해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(11.4%),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(11.1%), 건설업(8.6%)임.



[그림 2] 남성 성희롱 피해자 비율 상위 3위권 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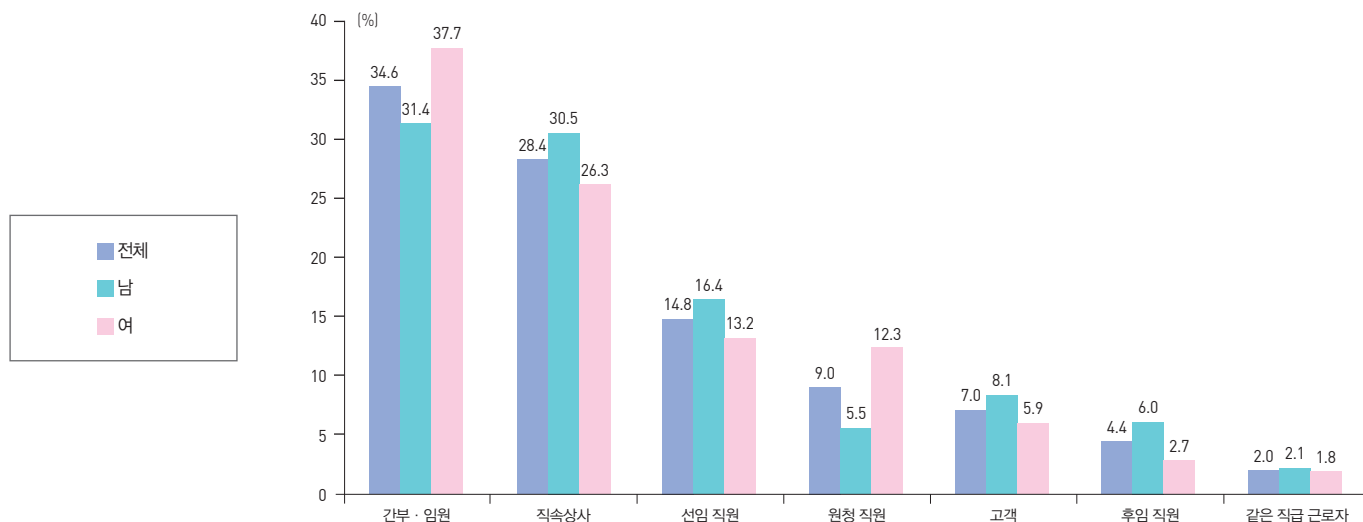
- 여성 성희롱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조작적 피해자의 경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50.0%), 제조업(43.5%), 부동산 및 임대업(42.3%)임.
- 주관적 피해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공공행정 ·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(21.1%), 부동산 및 임대업(18.5%), 출판 · 영상 · 방송통신 · 서비스업(18.5%)임.



[그림 3] 여성 성희롱 피해자 비율 상위 3위권 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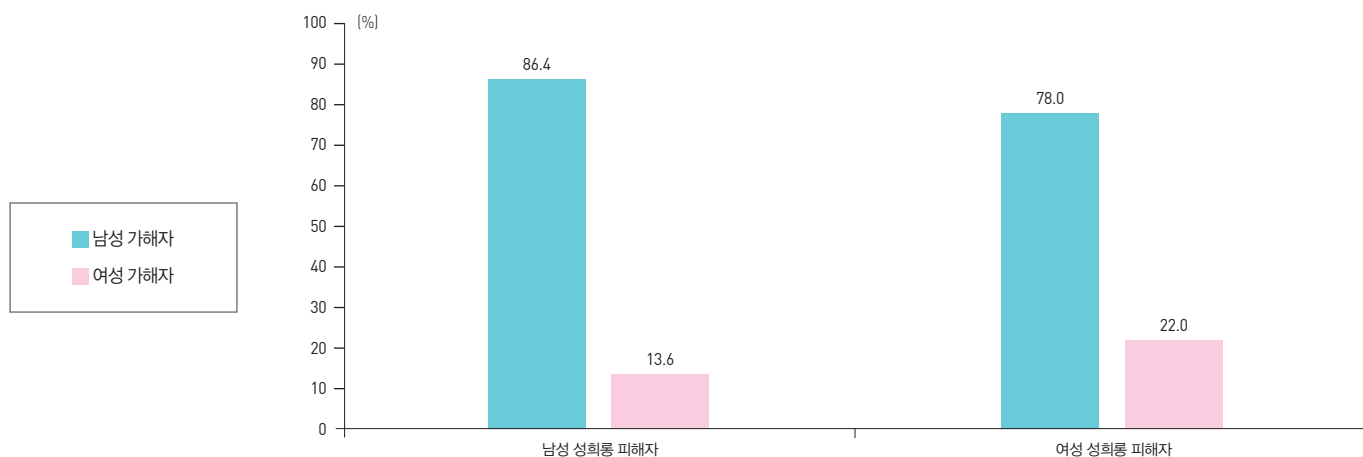
직장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남녀 피해자 불문하고 간부·임원과 남자로 나타남.

- 직장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간부·임원(34.6%), 직속 상사(28.4%)가 가장 많고, 선임 직원(14.8%), 원청 직원(9.0%), 고객(7.0%), 후임 직원(4.4%), 같은 직급 근로자(2.0%)의 순으로 나타남.



[그림 4] 성희롱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주요 가해자 직급

- 주요 가해자의 성별을 보면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, 대체로 남녀를 불문하고 남성 가해자가 주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남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성비는 남자 가해자 86.4%, 여자 가해자 13.6%임.
- 여성 피해자는 남성 피해자에 비하여 여성 가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여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성비는 남자 78.0%, 여자 22.0%로 나타나, 이성 간의 성희롱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희롱도 무시 못 할 수준임.



[그림 5] 성희롱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주요 가해자 성비

남성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횟수가 여성 피해자보다 더 많음.

- 근로자 1인이 6개월간 평균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횟수는 6.36회임.
- 성별로는 남자가 6.79회, 여자가 5.79회로 오히려 남성 근로자의 피해 횟수가 더 많음.
 - 남성 피해자 비율이 여성 피해자 비율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, 남성 피해자의 평균 성희롱 피해 횟수가 여성보다 높다는 점은 남성 피해자들이 여성 피해자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욱 자주 성희롱에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함.

- 남성 근로자가 주로 경험하는 성희롱 방식과 여성 근로자가 주로 경험하는 성희롱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음.
 - 여자의 경우, 성별 관련 업무 능력의 비하(0.93회), 몸통과 먼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(0.88회), 여성성·남성성의 비하(0.85회),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및 평가(0.69회) 등의 일부 행위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.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특정 행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음.
 - 남자의 경우, 본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담패설(0.64),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(0.61회), 음란한 내용의 통화 및 문자(0.51회), 부부관계 및 연인관계에 대한 성적 질문(0.51회), 성적인 관계의 강요 및 회유(0.44회) 등 직접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여성 근로자보다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〈표 1〉 6개월간 경험한 성희롱 행위의 평균 횟수

(단위: 회)

| 성희롱 행위 | 전체 | 남 | 여 |
|--|------|------|------|
| 몸통(손, 어깨, 무릎 등)과 비교적 먼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| 0.79 | 0.73 | 0.88 |
| 성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업무 능력 비하 (예: 남자 / 여자라서 일을 잘 못한다) | 0.76 | 0.64 | 0.93 |
| 기타 피해자의 여성성·남성성을 비하하는 언행 (예: “사내자식이 그 정도도 못 참아서”, “여자는 모름지기 집안에서 살림이나 해야”) | 0.74 | 0.67 | 0.85 |
| 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| 0.64 | 0.60 | 0.69 |
| 피해자 본인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음담패설 | 0.51 | 0.64 | 0.32 |
| 외설적인 그림, 낙서, 사진, 동영상 등의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| 0.46 | 0.61 | 0.25 |
| 피해자에게 이성인 상사, 동료, 고객 등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접대 강요 | 0.46 | 0.40 | 0.55 |
| 음란한 내용의 농담, 전화통화, 문자(카톡 등) 포함 | 0.43 | 0.51 | 0.32 |
| 피해자의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 대한 성적 질문 | 0.40 | 0.51 | 0.24 |
| 몸통에 근접한 부위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(팔뚝, 가슴, 엉덩이, 허벅지 등) | 0.34 | 0.35 | 0.32 |
|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| 0.31 | 0.44 | 0.13 |
|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| 0.30 | 0.40 | 0.17 |
|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행위 | 0.22 | 0.29 | 0.13 |
| 총 계 | 6.36 | 6.79 | 5.79 |

주
직장 성희롱 행위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의 데이터도 포함한 평균 수치임. 즉, 3,000명 응답자 모두의 평균임.

03 시사점

- 기간 남자의 직장 성희롱 실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, 남자와 여자 모두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음을 확인함.
- 남녀 모두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성희롱 예방 대책과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.
 -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직장 성희롱 교육 콘텐츠의 개선을 통해 성희롱이 단순히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, 남녀 모두가 보호받아야 함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.
 - 남녀 모두 성희롱 행위를 접할 경우, 해당 행위가 성희롱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의 제고가 필요함.
- 여성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
 - 사회문화적으로 강한 이미지가 요구되는 남성의 성역할로 인해 성희롱을 경험하고도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많음. 여성 피해자를 위한 소통창구에 비해 남성 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더욱 제한적임.
 - 여성 피해자와 남성 피해자, 목격자 모두에게 접근성이 높은 소통 창구를 설치해야 하며,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.

서 유 정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

이 진 술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)